

## 자기 개발

우리는 신년을 맞으면 의례히 새로운 각오로 한해를 계획한다. 어떤 목표를 향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고 말이다. 물질적 풍요나 지위의 향상 같은 개인적인 목표, 자기직장이나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발전을 염두에 둔다. 대체로 전진해 보겠다는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둔다.

그런데 발전, 답보 혹은 퇴보를 결정하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런 것들중에 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사실은 굳이 인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자명하다. 또한 인간의 잠재능력은 그 한계가 어느만큼인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능력 개발을 통해서 문명·문화를 이룩하고 사회를 발전시켜온 것이다.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선진 대열에 서 있는 민족은 그들의 능력 개발에 부단히 노력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웃나라 일본이 오늘날의 일본이 된것은 그들 국민 각자가 끝없는 호기심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오늘날의 한국이 된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이 그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수천만 국민 가운데 나 한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요긴한 것인지를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다.

그런데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학교를 떠나면 그것으로 공부를 마친 것으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렇게 되가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직장에서는 각종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 만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럴까?

능력의 개발·향상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은 그저 도와주는 것 뿐이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하루 이틀에 쉽게 되지 않는다. 장기간을 두고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다. 성과도 더디게 나타난다. 그러니 조금해서도 안된다.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면 그만큼 일찍 결실을 보게된다.

방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방재 전문인으로 개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고 직장을 또한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방재 전문인이 되는 것은 오로지 우리 각자의 자기 개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언제라도 배움의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되겠다.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님께서 기초 물리학 서적을 다시 보시며 “읽을 때마다 새롭단 말이야.”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자기 개발 즉 공부를 위해서는 각종 문헌이나 서적등 자료를 읽어야 한다. 불행히도 모든 자료가 우리 글로만 된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다 하지만 영문자료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더 공부해서 최소한 읽을 줄은 알아야 하겠다.

우리는 누구나가 바쁘다. 일에 바쁘고 자기 생활에 바쁘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여가를 내어 내일을 위한 활력을 얻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금년은 공부를 시작하는 해로 하자.